Weekly 공감
2010.08.18 No.73
gonggam.korea.kr
門化光
光化門
84년 만에 제자리 찾다 p14~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만들 것" p16~19
기획특집 소통과 화합으로 '하모니 코리아' p25~48
한여름 구슬땀…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24시 p10~11

소통은 '스킬'이 아니라 '문화'다

바야흐로 '커뮤니케이션 폭증(Explosion)'이 도도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고, 소통의 도구 또한 눈부시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덕분인가, 현대인의 일상이 TGIF(원래는 Thank God It's Friday의 약자였으나 요즘은 Twitter+Google+iPhone+Facebook의 합성어라고 한다)에 점령당했다는 재치 있는 조크가 등장하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속이 가능해진 시대이고 보니 요즘은 1백 일만 만나도 '오래된 연인' 축에 든다는 유머도 떠돌고 있다.

한데 소통의 폭증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소통의 부재가 더욱 절실히 감지되는 역설(逆說)이 진행됨은 어인 연유인지. 초등학교 5, 6학년 휴대전화 속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부모님 이름이 '안받아'인가 하면,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건 다름 아닌 '소통'이다.

〈포춘〉지 선정 '일하기 좋은 1백대 기업' 리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부상한 요건이 조직 내부의 정보 흐름 원활과 소통 시스템 배양으로 나타났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통은 단순한 '스킬(skill)'이 아니라 삶의 양식 속에 자연스레 뿌리내린 '문화'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일러 '소통의 귀재'라 하지 않는다. 그건 비록 눌변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감력(共感力)의 소유자를 일컫는 찬사다.

소통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차이를 차별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레 인정하고 그 연후에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사회도 다원화, 이질화 및 다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념, 세대, 지역, 계층, 나아가 인종 간에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 등으로 다종다양의 갈등과 소통의 장애를 겪으며 내분과 통합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 간(間)' 갈등보다는 '사회 내(內)' 갈등이 더욱 격렬하고 치열하며 자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깊은 반성과 성숙한 성찰이 필히 요구된다.

이제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인정을 담아 열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선진사회를 향한 필수조건이라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숙한 통합을 지향해감은 선진사회에 이르는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 믿는다. G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Weekly
2010.08.18
No.73(통권 174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1865년 고종 때 중건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사진 · 조영철 기자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8.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하나 되는 코리아’ 다함께 만들어요

막힘이나 오해 없이 서로 잘 통함을 ‘소통’이라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비슷하게 어울리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특별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소통과 화합이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입니다. 서로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져
계층, 이념, 지역, 세대별로 갈등을 빚고 불협화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통과 화합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다름이 있기에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
나와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나 먼저 말입니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2호(8월 11일자) 기획특집 ‘4대강, 생명의 강’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강이 되살아나면 우리 삶도 변해요”

“아이들과 물고기가 하나 되어 뛰어노는 한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며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이 되살아날 때 우리 삶도 행복으로 바뀌리라 자신합니다.”_이순호

“4대강살리기는 오염된 강, 병든 강을 되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고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희망 살리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모쪼록 끝까지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무사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_유연희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 기대됩니다”

“4대강 준설이 논밭을 옥토로 바꾸는 선물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준설로 물그릇을 키우고 가동보를 설치해 물을 저장하게 되면 가물어도 강바닥이 드러날 일이 없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_이유리

“젊고 씩씩한 대학생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 앞장선다니 자랑스럽습니다. 4대강살리기로 소통하고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모든 일에 열심인 1백99명의 서포터스를 통해 4대강살리기의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_우기헌

72호 중점기획 중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기억하겠습니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됐습니다. 올해 65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 나라 사랑에 앞장설 것입니다.”_최남이

72호 명사가 읽는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예전부터 고(故) 장영희 교수의 글을 좋아해 일간지에 연재된 칼럼을 묶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바빠서 꼼꼼하게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사로 소개돼 다시 한 번 읽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나온 유명한 문학작품과 대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_민지욱

4대강살리기는 환경 살리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기억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친환경 운전문화 로고·포스터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나부터, 친환경 운전 실천(Me First, Eco-Drive)'을 주제로 공모전을 연다.

공모 분야 | 로고(CI), 포스터, 표어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 9월 10일(금)까지
접수 방법 | CI, 포스터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표어는 전자우편(msoh@aea.or.kr) 접수
접수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7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수상작 발표 | 9월 말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시상 내용 | 부문별 최우수 작품 각 1점 등 총 19점 선정. 환경부 장관상과 최대 2백만원의 상금 수여 예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aea.or.kr

'정부민원포털' UCC를 보내주세요

정부민원포털 'G4C'가 '민원24'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홍보 사용자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벌인다.

공모 주제 | 내가 써본 전자민원 이야기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가능, 1인(팀)당 3편 응모 가능
접수 기간 | 8월 31일(화)까지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작품 파일 웹사이트주소(URL) 접수. 동영상은 3분, 640×480 픽셀, 50MB 이내로 제작
수상작 발표 | 9월 17일(금) 민원24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시상 내용 | 최우수작 1편을 비롯해 9편의 수상작 선정. 상장과 소정의 상금 수여 예정

행정안전부 ☎ 02-2100-4450 minwon.go.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8월 2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도로나 교통망, 통신망 같은 것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소통이 잘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4. 불교에서 속세를 떠나 수도에 전심하는 일. '이조판서'를 줄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7.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OO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어떤 대상이 나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남이 아니라는 뜻. "OO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9.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OOO이 닳도록 드나들다."

세 로

2. 여러 것을 하나로 합침. 사회OO위원회.
3. 둥근 달, 둥글고 환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고유의 민속악. 서사적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구연(口演)하는데, 지역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뉘죠.
6. 경복궁의 정문. 한국 고유의 금강소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목조건물로 다시 태어나 올해 광복절에 일반에게 공개됐죠.
8.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Weekly 공감〉 71호(8월 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공교육 3 상전 5 일시 7 자장면 8 보금자리
세로 1 공부방 2 육상 4 전통시장 5 일자리 6 담보

〈Weekly 공감〉 71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규성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류병영 · 서울 관악구 서원동
서용미 ·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송지영 ·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창희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병역의무 다해 자신에게 떳떳하세요”

조인성 병무청 홍보대사

“군 입대 전과 입대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입대 전에는 연예인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지난 5월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병무 홍보활동을 하던 중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저의 농담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게 됐을 때 주위에서는 2년의 공백기 때문에 팬들의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의무를 다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군에 2년 다녀온다고 해서 1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줬습니다.

그러나 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역을 회피하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병역의무를 다해서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과 같은 일상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엔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만큼 군 복무 2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저 또한 공군 군악대원과 병무 홍보대사로서 겪은 특별한 체험과 소중한 추억들이 배우로서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6월 병무청 홍보대사 자격으로 병무청이 주관한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명예롭게 병역을 마친 분들에게 포상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들은 병역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격(國格) 제고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전 국민이 공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병역 이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무이자 권리인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병역을 아름답게 실천한 여러분이 있습니다.

글 · 조인성(배우)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동

1. ‘안동 하회·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사를 읽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두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거든요. 앞으로도 잘 보존해서 대대손손 물려줬으면 합니다.

2. 예년의 경우 이맘때쯤이면 집중호우로 강물이 범람해 유실 피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철저한 정비, 보수 덕분에 별 피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특집의 전반적인 내용처럼 4대강살리기 사업이 환경을 지키고 태풍, 홍수 같은 재해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3.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우윤숙 대구 달서구 죽전동

1. ‘세 살 경제교육 여든까지 간다’ 기사를 읽고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히 하면 어른으로 성장한 뒤에도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기획특집 기사 중 ‘4대강 준설토, 논밭을 옥토로 바꾸는 선물’을 읽고 준설토로 파낸 흙이 논밭을 기름지게 하고 옥토로 바꾼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처음엔 준설과 준설토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했는데 이젠 준설 덕분에 농경지가 비옥해지고 강물의 흐름이 좋아질 뿐더러 유량이 많아져 가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 요즘 들어 유연근무제, 퍼플잡처럼 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현 근무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소통과 화합으로 하모니 코리아’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행복한 세상 만드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 **집중공모기간**
2010년 8월 1일 ~ 10월 31일 까지
※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는 연중 상시 공모

■ **접수방법** _ 인터넷 접수 www.oklife.go.kr

■ **접수문의** _ 02) 2100-3860, 1758

■ **시상내역**
· 대통령상 7명(부상금 각 200만원)
· 국무총리상 7명(부상금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10만원)
※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기준**
· 2010년 10월 31일 까지 접수된 제안 심사
(이후 접수 제안은 2011년 심사)
· 동일 제안은 우선접수된 순으로 수상자 결정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상시공모, 집중공모 및 각 기관별 생활공감
공모작 대상 심사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중 개최

| 제2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대통령상 수상작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운영 _ 주부 박영주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 _ 주부 손연화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제도 개선 _ 근로자 박경수 /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위반범칙금 납부** _ 직장인 마태성
다자녀 가구 사용량 제한 없이 전기요금 할인 _ 주부 조정순

글로벌 CEO 1백여 명 오는 11월 한국 온다

'G20 비즈니스 서밋' 참석… 신재생에너지 의장에 최태원 SK 회장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CEO들.(맨 위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마웨이화 중국초상은행 CEO, 피터 브라벡 네슬레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로저 아그넬리 발레 사장, 안 로베르종 아레바 사장, 야스치카 하세가와 다케다제약 CEO,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세계 정상급 기업 최고경영자(CEO) 1백여 명이 참석한다. 소주제별로 짜인 12개 '워킹그룹'의 컨비너(conviner · 의장)들도 선정됐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 의제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금융의 안정성 제고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녹색성장의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등 4개로 진행되며 각 의제별 3개의 소주제가 선정됐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문제와 금융규제를 다루는 재무장 · 차관 회의와 에너지, 무역, 투자 등 기타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셰르파(Sherpa) 회의를 양 축으로 정부 간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여기에 민간 분야의 거물급 경제인이 대거 참석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G20 정상에게 전하는 프로세스가 추가된다. 세계경제 현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 부문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종합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이 도출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G20 정상회의 하루 전인 11월 1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된다. 11월 10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두 차례와 오후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열린다. 12일 밤에는 G20 회원국 정상과 이들 '경제계 정상'이 문화행사를 겸한 환송 만찬 행사에 함께 모여 직접 만나는 기회도 마련된다.

의제별로 구성된 4개 분과에 소속된 CEO들은 동시에 집단토론을 하는데, 각 분과별로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모두 12개 그룹으로 세분된다. 조직위는 소주제별로 적합한 CEO를 '컨비너'로 선정해 토론을 이끌고 참석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겼다. 컨비너 선정은 CEO들간 의견 교환과 조율, 보고서 작성을 주도해 글로벌 공조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11월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따라 리더십과 글로벌 공조,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12명의 컨비너를 선정했다.

11월 11일 총 3차례 걸쳐 라운드 테이블 토론

한국에선 기업의 규모, 국제회의 경험, 어학능력 등을 고려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녹색성장 분과의 소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컨비너로 선임됐다.

최 회장은 1960년생으로 국내 그룹 총수로서는 젊은 편이지만 내로라하는 주요 국가의 CEO 1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 행사에서 한국의 경제계를 대표하게 된다.

소주제별로 7~10명으로 짜인 워킹그룹(작업반)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석 달간 보고서 작성을 총괄 지원하는데 대리인으로 지정된 임원급이 실제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9, 10월 두 차례 중간 회의를 열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초청된 인사는 G20 회원국의 회장과 CEO 등 80여 명과 비(非)G20 국가에서 온 CEO 20여 명 등 1백명 정도다.

G20 정상회의 조직위원회는 〈포춘〉 선정 2백50대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업종별 균형을 맞춰 참가자를 선정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소주제별 의장

분과	소주제	컨비너(의장)
무역·투자	무역확대 방안	빅터 펑 리&펑그룹 회장
	외국인 직접투자	피터 브라벡 네슬레 회장
	중소기업 육성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금융	금융과 실물경제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터드 CEO
	출구전략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인프라 / R&D투자	마쿠스 발렌베리 SEB회장
녹색성장	에너지 효율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신재생에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
	녹색일자리	디틀레프 엥겔 베스타드윈드시스템 사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과 생산성	조셉 선더스 비자 회장
	청년실업	고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 CEO
	의료 및 아프리카	하세가와 야스치카 다케다제약 CEO

금융 부문에선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스티브 그린 HSBC 회장,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터드 CEO, 비그람 팬디트 시티그룹 CEO, 조지프 선더스 비자 회장, 겐이치 와타나베 노무라 홀딩스 CEO 등의 참석이 확정됐다.

제조, 정보기술(IT), 에너지 분야에선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피터 브라벡 네슬레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 토탈 회장, 프란츠 베렌바흐 보쉬 회장, 안 로베르종 아레바 사장이 방한한다.

조직위원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다른 국내 대기업과도 CEO의 참여를 두고 협의 중이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 등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수차례의 사전 회의를 거쳐 긴밀한 조율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 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의가 G20 체제에 민간 참여 채널을 구축하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로, G20 정상회의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운용 방향을 G20 정상과 경제인이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민관협력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장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서밋에는 세계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업종별, 국가별 대표 CEO들이 참석해 정상들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요 경제사안에 대해 대화를 벌이게 된다"면서 "이처럼 민간 부문까지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유례없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강훈상(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직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느라 연일 자정을 넘기는 강행군을 거듭하면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왼쪽부터 8월 11일 예산안 협의차 들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신호철 서기관,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황규식 사무관,
문희영 사무관, 이윤태 주무관, 박정민 사무관, 김경국 사무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국민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일 수 없죠"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각종 공무원 연루 사건들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만 '불량 공무원'은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는 청백리를 지향하며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
〈Weekly 공감〉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공직 현장을 찾았다.**

국가재정의 주된 수입원은 조세다. 국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해달라'고 주는 세금이기에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사용할 예산을 짜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이 일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자리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1동 4층. 휴가철인 7, 8월에도 이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날이 거의 없다.

편성, 집행, 결산 등으로 1년 내내 처리할 업무가 산적해 있어 여느 달에도 철야근무가 잦지만 이맘때는 그야말로 야근과 밤샘의 연속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기한(10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후 6시 정시 퇴근 꿈 못 꿔도 사명감·보람 커"

"지금은 예산실 직원 1백50여명이 모두 가장 예민하고 바쁜 시기라 말 걸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강영규 예산협력팀장의 귀띔이다. 강 팀장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다루는 곳이라며 일자리와 환경 관련 사업의 예산을 짜는 노동환경예산과로 기자를 안내했다.

30제곱미터 남짓한 방에 직원 8명의 책상과 의자, 2개의 회의용 탁자 세트가 다닥다닥 들어찬 노동환경예산과는 비

좁아 보이는 공간만큼이나 여유가 없어 보였다. 두 탁자 모두 이미 만원이다. 한쪽에서는 이 부서 내부 회의가, 다른 쪽에서는 예산안에 관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출입증을 목에 건 또 다른 무리가 방안을 기웃거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은 모두 2백여 개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지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회 준비를 하다 보면 밤 10시가 넘어야 예산안을 짤 시간이 나지요."

국민에게 절실하고 실효성 높은 기준으로 예산 편성

노동환경예산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김경국 사무관의 말이다. 그는 평소 오전 9시까지 출근한다. 하지만 오후 6시 '칼퇴근'은 꿈도 꿀 수 없다. 상대적으로 덜 바쁜 2월이나 10월에도 밤 11시경에 퇴근한다. 요즘 같은 초비상 시기에는 업무를 마치는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길 때가 많다. 심지어 일요일에도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와 밤늦게까지 일한다.

"우리 부서뿐 아니라 예산실의 모든 직원이 야근과 철야, 일요일 근무를 예사로 해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노릇은 못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젠 적응이 됐는지 일요일이면 으레 출근하겠거니 하죠(웃음)."

시간외 근무가 한 달 평균 1백 시간이 넘는데도, 김 사무관의 얼굴 어디에서도 그늘진 구석은 찾아볼 수 없다. 비결이 뭐냐고 묻자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라서 일하며 느끼는 사명감과 보람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올해까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 청년 인턴제 같은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지만 내년도 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해 눈칫밥 먹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다채롭게 펼쳐질 겁니다."

예산실 직원 대부분이 그렇듯 김 사무관은 여름휴가를 포기한 지 오래다. 요즘 같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 비좁은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붙잡고 온종일 씨름하기가 녹록지 않을 텐데, 이보다 더한 고충은 정작 따로 있다고 말한다.

"예산안을 놓고 사업 관계자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재정 지원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국민에게 더 절실하고 실효성이 높은지를 기준으로 삼아 우선순위를 매기죠."

헌법에 따르면 지금 만들고 있는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10, 11월에 예산안을 심의한 뒤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2월 3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시한이 지켜지지 않아 정부는 물론 정책의 소비주체인 국민과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차기년도 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연한 피해를 봤다. 김 사무관은 이를 우려하며 "올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때 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는 이듬해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불가피합니다.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일은 국정운영과 국민 생활안정과도 직결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직원들.

4대강의 경관거점 중 하나가 될 낙동강 강정보 주변에 수변 생태 공간이 조성되기 전 모습.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 지역명소 '수변공간' 10월부터 본격 추진

주변 문화·역사 자원 맞춤형…강 전체 종주 자전거길도

4대강 수변(Waterfront)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꾸며 지역명소로 키우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강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변 생태공간을 강별로 특색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스페인 빌바오는 오염과 악취에 시달리던 네르비온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상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영국의 젖줄이자 관광 명소인 런던의 템스강도 수변공간을 잘 활용한 예다. 강변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는 시민들의 운동코스와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템스강 하류의 낙후지역이던 커네리워프와 템스게이트웨이가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기법으로 개발돼 비즈니스와 주거를 겸한 신도시로 거듭났다.

미국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강의 수변을 따라 상업·문화 시설을 배치하고 시민을 위한 보행 네트워크인 '리버워크'를 만들었다. 수심 2.4미터, 길이 5.8킬로미터의 수변공간을 개발한 리버워크는 현재 '미국의 베니스'로 불리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수변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 습지, 갈대 군락지 등을 살리면서 자전거길, 쉼터, 전망대 등을 갖추는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 만들기' 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강 주변을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수변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강 주변의 자연적 요소는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할 경우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4대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 만들기' 10월부터 본격 추진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생태하천 설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생태·문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

4대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의 낙동강 강정보 조감도. 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정보와 강변을 따라 펼쳐진 수변 생태공간이 눈길을 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쳐 9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10월부터는 나무심기 같은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4대강 수계별로 특색 있는 지점을 '경관 거점'으로 선정해 강의 특성에 따라 생태, 역사, 문화 등을 강조하는 경관 조성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관 거점은 그 지역과 강의 특성에 따라 생태문화경관 거점, 역사문화경관 거점, 지역문화경관 거점 등으로 분류해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때 각 거점을 중심으로 강마다 형성돼 있는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은 최대한 그대로 활용된다. 다만 유실되거나 소실된 부분은 보완하거나 보강하고 산책로,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친환경 조성방식이 적용된다.

또 4대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은 강 전체를 종주할 수 있도록 끊어지는 구간이 없게 인근 지방도 등에도 우회 자전거길을 만들 예정이다. 2, 3일씩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4대강 주변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강변시설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4대강 상·하류 연결하는 자전거길 만들 예정

또 자전거 동호회 등 전문단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단절 구간에 대한 우회 안내, 쉼터, 강 주변의 이야기 등이 포함된 이용안내서도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현재 수계별로 8~10여 개의 거점지역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40여 곳을 경관거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추진본부 이형기 생태환경팀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자연스럽게 상생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협력과 아이디어 제안이 절실한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빛의 문’ 위용 드러내다

복원된 광화문 국민의 품으로

2006년 12월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한 광화문이 3년 8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7미터 돌기둥 위에 13미터 높이의 복층 누각. 광화문은 일제에 의해 훼손된 아픈 역사를 딛고 1865년 고종 때 중건 당시의 위용을 그대로 담은 목조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복원된 광화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현판이다. 1968년 콘크리트 복원 당시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기초로 만들어 걸었던 광화문 현판이 이번에는 고종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1900년대 초의 유리 원판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해 제작한 광화문의 새 현판은 고종 때 공사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겸 영건도감제조 임태영(任泰瑛)의 글씨다. 각자장(刻字匠·중요무형문화재 106호) 오옥진 선생이 글씨를 새겼고 단청 채색은 단청장(丹靑匠·서울시무형문화재 31호) 양용호 선생이 맡았다.

복원된 광화문은 기존 위치에서 남쪽으로 11.2미터, 서쪽으로 13.5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1968년 복원 당시 중앙청 축에 맞추면서 3.75도 틀어졌던 각도도 이번에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복원된 광화문은 고종 중건 때처럼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까지 일렬로 배치됐다. 광화문의 서까래(椽木)는 1968년 복원 때 크기가 15센티미터로 얇아 비례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복원에서는 이 역시 21센티미터로 바로잡았다. 지붕과 처마를 떠받치는 서까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문루(門樓)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웅장해 보인다.

안전진단 등을 위해 2008년 3월 이후 관람을 막아온 경회루도 8월 15일 일반 국민에게 개방됐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건청궁 내부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광화문과 경복궁은 5만~6만명의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1865년 고종 때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과 현판이 공개됐다. 이날 광화문과 경복궁에는 5만~6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 건물 면적만 9백31제곱미터. 경복궁의 전각 중 가장 크고, 전국 2백50여 개 누각 중에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경회루다.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누각으로 2년 6개월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광화문의 처마는 서까래를 이중으로 처리한 겹처마다.
한 겹 더 올린 처마 덕에 새가 날갯짓을 하듯 곡선이 날렵하고 곱다.

▼ 건청궁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곳.
장안당 대청마루에서는 용평상, 임금을 상징하는 병풍인 오봉병, 장지문을 볼 수 있다.

▼ 임금의 통로인 홍예문 천장에는 임금과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 한 쌍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열린 홍예문 사이로 흥례문이
정면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연 광화문 앞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65돌 경축사 전문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나라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광복 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에 절실한 정책 핵심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서민과 약자가 행복한 사회,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이며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축사의 요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65주년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앞에 경건히 고개 숙입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선 광화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욕이 함께했던 민족사 1백 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1백 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광화문이 가로막혔습니다. 민족의 정기가 막혔습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노력과 투쟁은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광복은 ‘발전 신화’의 밑거름

65년 전 우리는 그토록 갈망했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우리 민족은 인류사의 보편적 길로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6·25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우방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후 불과 두 세대 만에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는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나라에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해,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힘겨웠지만 국민 여러분의 도움과 노력 덕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고,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아직도 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젊은 어머니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간담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모두가 취업 걱정입니다.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국정 목표입니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참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부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장경제를 더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함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 속의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선진화의 윤리 인프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은 바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커졌지만, 책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풍조도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주의는 만연하는 데 반해 가족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는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발전의 의미를 다시 성찰할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의 향상으

로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0년 세계 최고 녹색강국 이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위협입니다. 2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도전이 세계의 비전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아마존의 숲과 북극곰까지 배려하는 성숙함을 전제로 합니다.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거침없이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또한 성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공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미 세계를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분야, 바로 녹색성장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기성세대의 성취 위에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입니다.

녹색경제 시대에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가 나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체제를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G20 정상회의가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회의는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를 규정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회의를 계기로 G20가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문제 해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한민족의 염원 · 진정한 광복은 '통일'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

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 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와 신뢰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가 부여할 한층 더 큰 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광화문 복원, 새로운 역사 개막 상징

국민 여러분,

1백 년 전 강제병합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는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백 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84년 만에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어갈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더욱 확고해지고,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돌부리가 있고 비바람이 거세다 하더라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힘차게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G

조영철 기자

현판식을 마친 뒤 제 모습을 찾은 광화문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들어서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만들 것”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의 핵심 화두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와 기업, 정치권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녹색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남북 간 ‘평화공동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도입을 제시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 핵심 화두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경축사 전반에 걸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공정한 사회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임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 · 청년 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은 우리의 희망

대통령의 경축사 발표 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가능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경축사의 주제어가 되다시피 한 ‘공정한 사회’란 10년 전 외환위기에 이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광화문 현판 제막 및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 4부 요인 등이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을 방문한 모습.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념을 밝힌 바 있으며, 올여름 이후 재래시장, 서민지역 어린이집 등을 찾아 '공정한 사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왔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에 대해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년 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선포했던 이 대통령은 녹색비전 역시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세계의 비전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사가 서민, 약자에 대한 공정한 사회 실현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이다.

8월 9일 발표한 제4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선진국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제가 중소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를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문제 해결 기구이자 선진국, 개도국이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정한 지구촌'을 세계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공동체'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통일세' 논의를 제시했다.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며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평화공동체' 등 남북관계 새 패러다임과 '통일세' 제안

지금의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제안하고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만들 것과 이를 토대로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 결성을 제안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힘주어 말한 이 대통령은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4년 만에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복원한 광화문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어갈 문이 될 것"이라고 새로 현판식을 거행한 광화문 앞에서 경축사를 발표한 소회를 밝히며 "우리는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REUTERS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를 사죄하며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 88년 만에 돌아온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사죄 담화

광복 65주년과 한일 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간 총리는 우리 민족의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식민통치가 이뤄진 점을 시인하면서 88년 전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조선왕실의궤〉를 가까운 시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8월 15일 광복 65주년과 한일 강제병합 1백 년(8월 29일)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화 내용이다.

간 총리는 8월 10일 담화를 통해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새로운 1백 년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 총리는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는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간 총리의 담화는 간접적으로나마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이전 일본 총리들의 담화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담화에는 일본 궁내청(일본 왕실 관련 업무 기관)에 88년간 보관돼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가져간 도서를 조기에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 총리의 담화에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물밑 협상과 민간단체의 환수 노력이 빚어낸 성과다.

외교통상부는 "간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졌다고 일본의 과오를 솔직하게 표명한 점에 주목한다"며 〈조선왕실의궤〉 등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도서를 조기에 돌려받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우선 몇 년 전부터 민관

연합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사진 왼쪽은 고종과 명성황후 등에게 존호를 바치는 절차를 기록한 〈가상존호도감의궤〉이며 오른쪽은 명성황후 장례의식 절차를 기록한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다.

이 반환을 추진해오던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81종 1백67책의 환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절차와 일정 등을 알아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조선왕실의궤〉뿐 아니라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일본 내 한국문화재 상세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백50여 개 기관과 개인이 모두 6만1천4백9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이 중 궁내청 소장 한국 도서는 6백39종 4천6백78책에 이른다.

일본 내 6만1천4백9점 한국 문화재 '귀향' 기다려

〈조선왕실의궤〉는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책. '의궤'란 의식(儀式)과 궤범(軌範)을 합친 말로, 〈조선왕실의궤〉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다.

이번에 간 총리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는 강원 평창군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일본 왕실에 기증한 이후 88년간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국내 규장각과 장서각에도 소장돼 있으며, 이들 문서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간 총리는 8월 10일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분간 일본 내각의 결정을 담은 이번 담화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간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오는 11월의 서울 G20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두 정상이 양국을 각각 방문하기로 되어 있지만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위해 이 대통령이 그 전이라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현안이나 협력방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지혜롭게 협력해나가자"는 말을 덧붙였다. G

글 · 박경아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

"불가능 넘어 현실 돼 감격스럽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렸어요. 2006년 〈조선왕조실록〉을 받을 때도 그랬죠. 불가능을 넘어 현실이 되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조선왕실의궤〉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담화에 누구보다 환호한 사람은 혜문 스님이다. 그는 2006년부터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 운동을 주도해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사무처장이기도 하다. 혜문 스님은 그동안 일본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민간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에 앞장서왔다.

혜문 스님은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해 "담화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문화재를 돌려주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08년 반환운동을 시작하면서 잡은 환수 목표 시점도 올해 8월이었다. 한일 강제병합 1백 년인 올해 문화재 반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혜문 스님이 문화재 반환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4년 도쿄대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다.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혜문 스님은 2006년 7월 도쿄대가 서울대에 반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06년엔 일본대사관에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접수시키고 환수운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40여 차례 일본을 찾아 일본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설득해 여론을 조성하며 반환 캠페인을 벌여왔다.

올해 초 일본의 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혜문 스님은 궁내청 〈조선왕실의궤〉 5종을 추가로 확인, 모두 81종 1백67책이란 사실도 밝혀냈다. 도쿄대에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반환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혜문 스님이 이번에 〈조선왕실의궤〉까지 두 번이나 굵직한 환수 성과를 낸 것이다.

혜문 스님은 "일본 총리 담화의 문맥상 의궤 말고도 궁내청 소장도서까지 돌려준다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외교 협상을 통해 되도록 많은 도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이향휘(매일경제 문화부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

2010 보훈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하세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보훈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주세요.

01 시상부문

시상부문		수상자격
개인 및 단체	예우증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념사업	추모 · 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 개인 또는 단체
	언론홍보	각종 언론보도 · 홍보활동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문화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 · 공헌자의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와 각 개별법 등에 따른 보훈단체 제외

02 시상인원 및 내용

- **시상인원** : 5명(부문별 1명)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각 1,000만원

03 접수기간

2010. 8. 1. ~ 8. 31. (1개월)

04 접수처

- **보훈문화상 홈페이지(http://bohun.munhwa.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문화일보로 우편접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문화일보 사업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05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내역 각 1부**
- **공적 증빙자료 1부(별도 양식 없으며, 사본 제출가능)**

※추천서 서식은 보훈문화상 홈페이지(http://bohun.munhwa.com) 참조

06 수상자 발표

국가보훈처 · 문화일보 홈페이지 게시
(2010. 11월)

일러스트 · 황중환

기 획 특 집

‘하나 되는 코리아’ 다함께 만들어요

막힘이나 오해 없이 서로 잘 통함을 ‘소통’이라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비슷하게 어울리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특별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소통과 화합이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입니다.
서로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져 계층, 이념, 지역, 세대별로 갈등을 빚고
불협화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통과 화합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다름이 있기에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
나와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나 먼저 말입니다.

'다름' 인정하고 손 맞잡는 게 '사회통합'

한 사회의 갈등 극복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사회통합이다. 계층과 이념, 지역·노사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와 공존, 사회통합의 길을 찾는 것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지만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나 하자.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은 동자승 이야기다. 단짝 친구한테서 크리스마스때 교회에 와달라는 말을 들은 동자승. 신앙을 지키자니 우정이 울고, 우정을 지키자니 신앙이 훼손될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순진한 동자승의 고민은 큰스님의 '다녀오라'는 허락으로 단숨에 해결된다. 교회에선 목사님에게서 큰스님께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까지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알고 보니 큰스님과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던 것이다.

박관호 작가가 지은 〈동자승의 크리스마스〉라는 동화다. 이런 동화가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유럽과 중동에선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며 천년 가까이 피를 흘렸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 갈등과 폭력, 테러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종교와 종파가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대립과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 억지로 바꿀 것을 강요하

서로 다름을 뛰어넘은 손에 손 잡기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광복 65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청 본관 외벽을 장식한 시민 사진들.

지 않고 공존의 지혜로 껴안아온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를 제외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연구원에 따르면 수치로 따져서 0.71로 OECD 평균(0.44)보다 1.6배 정도 높다.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져 사회갈등으로 인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퍼센트가 지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고 통합이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쩌다 공존과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립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 걸까.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65퍼센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계층→노사→지역→이념 순으로 갈등 해결 시급

최고 수준을 5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응답자들은 계층(4.0점), 이념(3.82점), 노사(3.77점), 지역(3.61점) 순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층, 노사, 지역, 이념 순으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꼽힌 계층갈등과 관계 깊은 사회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8.3퍼센트가 사회경제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기회균등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18.3퍼센트에 불과했다.

또 국회, 정부, 언론, 법원, 경찰, 은행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19.6퍼센트)보다 신뢰하지 않는다(43.0퍼센트)는 응답이 많았다. 한마디로 갈등과 불신이 심각한 상태다.

사회통합위원회 노대명 전문위원은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은 사회통합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통합이란 세계화와 기술 발전, 평균수명 증가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대전환기에 발생하는 제반 사회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한바탕 광풍처럼 몰아쳤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갈등과 대립의 극단을 목도했다.

'멜팅포트(Melting Pot · 인종의 용광로)'와 '샐러드바(Salad Bar)'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이 과거에는 '멜팅포트' 개념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녹여 융합하는 사회통합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이 결국 다른 것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낳아 최근에는 '따로 또 같이'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바' 개념으로 사회통합 방식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비빔밥'이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다. 자부심 높은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계층 · 이념 · 노사 · 지역갈등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사회는 서로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과 같이 다름이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동자승을 초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계층·이념·지역·세대' 갈등 해소 위해 파이팅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우리 사회의 4대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축을 이루는 사회통합위원회의 활약상과 건강하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기운을 곳곳에 불어넣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한다.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계층·이념·지역·세대분과 직원들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염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가운뎃줄 오른쪽의 김동완 지원단장부터 시계방향으로 권기환, 박성진, 조철훈, 서민수, 정상은, 이지현 씨.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월 9일 사회통합모니터링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이를 공동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만연한 갈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해친다. 올해 초 한국방송공사(KBS)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것도 경제정책 다음이 사회통합이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위원장 고건 전 국무총리)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우리 사회의 4대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사통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대화 절차 제도화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 평가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사통위에서는 먼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센터인 '소통과 화합 마당'을 홈페이지에 개설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초에는 사통위 활동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와 달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한 사통위 블로그 '하모니愛'를 개통했다. 이와 함께 월 단위로 주제를 정해 기사, 사진 등 콘텐츠 생산과 사통위 홍보활동을 전담하는 8명의 '하모니터스'도 두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통위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이라는 소식지도 웹진과 잡지 형태로 지금까지 두 차례 발간했다. 웹진 〈사통팔달〉은 사통위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 1회 뉴스레터 발송, 회의 내용과 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8월 16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다.

웹진 〈사통팔달〉 쌍방향 소통 위해 새롭게 태어나

사회통합 실태 진단과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도맡는 사회통합모니터링센터도 탄생했다. 8월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통위가 공동 설치한 사회통합모니터링센터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식이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사통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운영을 맡은 사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나라별 사회통합 실태 비교 ▲사회통합 국민의식에 대한 기초 조사와 주요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계층·이념·지역·세대분과 별로 추진된다.

지난 7월 초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수석이 신설됐다. 사회통합수석실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민원관리비서관을 두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과 소통을 맡는 조직이다.

7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제 탓입니다에서 출발하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박 수석은 발제에서 "사회가 다원화돼 있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특정 세력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회통합수석실은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일선 행정관으로까지 정례화해 청와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가 정부 부처, 국회와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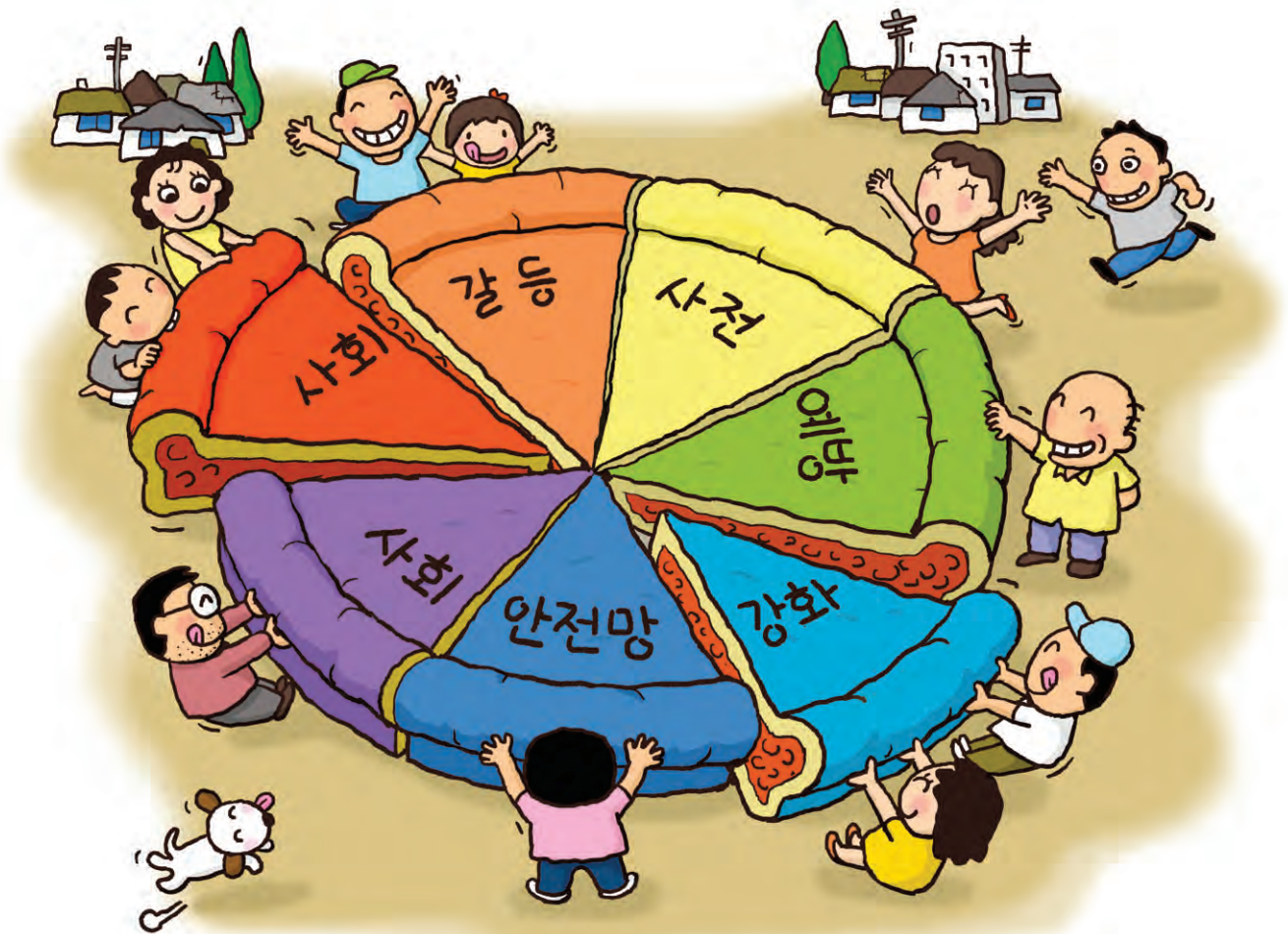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민간도 갈등 해소에 앞장

민간 차원 한국갈등해결센터 발족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을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갈등 분석과 유형에 대한 이해 같은 이론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례 조정 시뮬레이션과 함께 실제 조정을 위한 기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한국갈등해결센터'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족할 예정이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을 중심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교육훈련과 선진적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초기 노사관계 갈등 조정뿐 아니라 환경, 가족 분쟁, 각종 사회적 이슈로까지 영역을 넓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컨설팅과 시스템 디자인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과 전문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 · 이우정

계층 경계 없는 ‘함께 나누는 사회’로

근로빈곤층 복지 지원 ·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주거안정권 보장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 도시재정비 사업의 재검토가 계층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판단해서다.

최종보(53) 씨는 자녀들에게 한창 교육비가 들어가는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세 자녀를 둔 가장에게 해직 통고는 청천벽력이었다. 군에서 전역한 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보안실장으로 약 4년간 근무하다 해직 통고를 받은 때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된 것이다.

이후 구직에 거듭 실패한 최 씨는 주위의 권유로 지난해 봄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는 여기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취업과 면접전략 등을 준비했다.

9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시행

그리고 하루 2번꼴로 석 달 동안 1백83개 업체에 지원한 끝에 지난 5월 중견 건설업체의 환경팀장이 됐다. 그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취업문을 열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 배운 대로 꼼꼼하게 작성한 직무계획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1만3천8백70명. 그중 22.6퍼센트인 3천3백88명이 최 씨처럼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고용 지원 제도다.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소득이 빈곤선(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인 가구원 중 취업 상태에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 기준 근로빈곤층을 2백62만명으로 추산한다.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 및 '고용 없는 성장' 심화로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빈곤층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감소는 빈곤층의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된다. 2009년 최하위 10분위 소득은 전년 대비 7.6퍼센트 줄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해져 지니계수로 본 상대적 빈곤률이 14.6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퍼센트를 웃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빈곤층 가운데 근로빈곤층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이 되는 주된 이유는 근로빈곤층의 3분의 2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여서 임금이 매우 낮고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의 지적대로 정부가 고용 및 복지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음에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사통위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약 2백만명에서 2백50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기능훈련,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부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 월 6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고 사업주가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0퍼센트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용사참사의 원인에 대해 한 일간지는 "용산참사는 표면상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 보상비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 진행방식이나 공공성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 홍 교수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및 이주비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 문제,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 개발이익 분배 문제 등이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천2백70곳, 서울에만 1백96곳의 도시재정비 구역이 지정돼 있다. 사통위는 이들 구역의 3대 갈등요인으로 ▲상가 세입자의 보상 문제 ▲주민 찬반 갈등 및 조합과 주민 간 갈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문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가 세입자의 휴업기간 동안 영업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체상가를 늘리는 방안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임대주택 가구 수를 늘리고, '선대책 후철거' 등 순환식 개발을 늘리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 월 6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고 사업주가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0퍼센트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통위 도시재정비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4차례 회의를 열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소위원장인 배경동 SH공사 도심재생본부장은 "주거안정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선결과제"라며 "도시재정비 사업은 경제성만 따져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공공사업이라는 데 대부분의 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시재정비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월까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고용노동부 부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진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

동아DB

"누군가는 기부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부에겐 특권이다."

8월 4일 부동산 재벌 엘리 브로드와 그의 부인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며 서약한 편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미국의 자선단체 '기빙 플레지'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투자회사의 워런 버핏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등 40명의 거부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살아 있는 동안이나 죽은 후 사회에 내놓겠다는 '기부 서약'을 공개했다.

'청계' 첫 장학생 4백51명 선발, 장학금 6억4천만원 지급

'기빙 플레지'는 미국의 4백대 거부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단체로, 목표 모금액은 6천억 달러다. 한국 GDP의 70퍼센트에 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들이 서약대로 재산의 절반만 기부해도 최소 1천2백50억 달러(약 1백4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통합 밑거름 '노블레스 오블리주'

2007년 국내 기부 8조7천여 억원… 10년 전보다 3배 늘어

대다수 국민은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저명인사들의 기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일반인들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상생경영은 한국경제 동반성장의 견인차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명보 올림픽축구 대표팀 감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 지금까지 11억1천만원을 기부해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

페루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거액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이 미미하다. 지난 5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화 지표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0위로 꼴찌였다.

GDP 대비 기부금 비중에서도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2.2퍼센트에 비해 낮은 0.9퍼센트 수준이다. 또 개인 기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 기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기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2007년 우리나라의 기부 규모는 8조 7천여 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그 사이 개인 기부액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저명인사들 사이에서도 기부 물결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50억원에 달하는 가수 김장훈, 전남 해남 땅끝마을 아이들의 공부방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억원을 후원하는 등 6년여 동안 약 15억원을 남몰래 기부해온 배우 문근영,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온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 등이 연예인 기부천사로 유명하다.

기부금 단체 5년마다 재심사 등 공익·투명성 강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에 3백31억4천2백만원을 이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올해 3월에는 청계의 첫 장학생 4백51명을 선발해 장학금 6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은 기부에서도 국가대표급이다. 이미 2003년부터 여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온 그는 1억원(법인은 30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정회원 35명 중 11억1천만원을 기부해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

올해 초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는 게 국민 대다수(81.1퍼센트)의 의견이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15퍼센트에서 올해 20퍼센트로 확대했다. 기부금 모금단체는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사통위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 ▲공익신탁 등 선진국형 나눔 유도제도 도입 ▲모금기관의 전문성 강화 ▲기부자와 수혜자 간 사회연대 강화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자선단체의 회계자료 공개 ▲나눔 캠페인 및 나눔교육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상생경영은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은 2008년 'LG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해부터 1천7백여 하도급 협력회사에 1백 퍼센트 현금성 결제를 해주고 있다. 2008년 11월 'LG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계열사는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 U+(유플러스) 등 9곳이다.

LG가 하도급 회사들에 약속한 '상생 테마'에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뿐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 중견인력 파견 및 무상 교육 지원, 혁신 컨설팅 지원,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기존 갑을(甲乙) 관계에 따른 수직관계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상생문화는 다른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에서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기아차, 대림산업 등이 상생협력의 우수 사례로 꼽혔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말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 라디오·인터넷 연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잇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독식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1백16개 대기업, 3만9천 개 중소기업, 정부 3자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 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금리 우대, 공공공사 수주 우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대기업은 51개. 내년에는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공기업 등으로 상생협력 체결 대상을 늘리고, 1차 협력사에 국한된 상생 프로그램을 2~4차 협력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른손으로 왼손 씻고, 왼손으로 오른손 씻듯'

보수-진보 '공통분모' 모색

오랜 시간 보수와 진보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이젠 의미 없는 달리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과거보다 미래를 주시하기 위해, 더 나은 국가발전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두 손을 맞잡으려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간 토론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비생산적인 토론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지혜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해 그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공통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지난 5월 25일 제3차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서 〈중앙일보〉 허남진 논설주간 기조연설 중)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가 매달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주도하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 덕분이다.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를 풀어내는 과정이 곧 사회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소통과 화합이다. 그러기 위해선 통합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이념 대립 극복이 우선이다.

사통위는 '이념'을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로 세우고 이념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라종일 우석대 총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삼은 23명의 위원은 지난 2월 19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념, 시장경제, 민주주의, 남북·한미관계, 균형발전, 교육 등 10가지 주제로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매달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볼 때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2년 미국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으로 세계평화의 위기가 도래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마저 촉발되면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산업, 노동, 소득의 경제 양극화는 물론 교육, 주거, 노후의 사회 양극화까지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갈등 해소 최선의 대안은 '소통과 화합'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외를 둘러싼 끝없는 불안감으로 보수 대 진보라는 소모적 이념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다. 반복되는 이념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발전마저 위협한다. 사통위 이념분과위원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진보 이념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이념 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사전준비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엔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를 열어 '한국정치와 이념갈등 : 소통과 공존의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국내 이념갈등의 원인을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 일정

회차	일시	주제	진보 측 발표자	보수 측 발표자
6	8월 31일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고형일(전남대)	이성호(중앙대)
7	9월 28일	사회복지, 미국 모델인가 유럽 모델인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안종범(성균관대)
8	10월 26일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홍종학(경원대)	김종석(홍익대)
9	11월 30일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이중과제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김태기(단국대)
10	12월 14일	종합토론 : '하모니 코리아! 리모델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제4차 남북·한미관계 주제 토론회.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학술대회 결과 '국민들의 이념 성향은 실상 중도로 수렴되고 있으나 오히려 정치인들이 양극화돼가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이념갈등과 이념지형의 변화'란 논문에서 "최근 이념갈등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이념적 분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지식인의 이념적 분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이 일상화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정치제도를 통해 이념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이념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사통위 이념분과위원들은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념을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에 이념분과위원회는 올해 비전을 '포용과 존중으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미래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념, 통합의 대상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토론회는 지난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5차례 열렸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보수 성향 민간연구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진보 성향 민간연구단체인 좋은정책포럼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회 운영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고 있다.

이 토론회의 백미는 공동제안서다. 1차 토론회 때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보수 진영의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와 진보 진영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함께 작성한 제안서에서 "한국사회의 막무가내식 이념갈등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이를 넘기 위해선 보수와 진보가 '싸움의 룰'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제안서에서는 ▲인본주의(人本主義) ▲민주주의와 시장제도 ▲평화와 번영의 대외관계 ▲사회적 약자 보호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동시 존중 등 6개항을 제안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5차 토론회에서는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보수 진영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진보 진영의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진보와 보수의 주장은 엇갈렸으나 장시간 토론 끝에 5개의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특화 발전을 지향, 중앙정부의 일정 역할 필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조항 명시 등이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매회 2백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을 만큼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학생부터 관련 학자까지 나이와 직업, 세대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통위 이념분과를 담당하는 김인호 사무관은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국가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내년도 이념분과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 02-2180-2731
harmonykorea.go.kr

해묵은 지역갈등 해결 무릎 맞대다

지역주의 정치문화 개선·갈등해결 절차 제도화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세계 유일무이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안타까운 상황이 가려져 있다. 지역주의 정치구조와 갈등해결 절차의 미흡으로 지역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전남 광양시 매화마을 섬진강 둔치에서 제2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가 뜻깊은 이유는 섬진강이 지닌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한때 섬진강은 영호남 지역갈등의 상징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얼룩진 영호남 지역 사람들은 아름다운 섬진강을 곁에 두고서도 서로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영호남 간 해묵은 지역갈등을 서서히 해소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섬진강을 영호남을 잇는 소통의 물살로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도록 마라톤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로 얽힌 지역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 22명의 지역분과위원을 위촉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영호남 화합의 현장을 둘러본 강지원 지역분과위원장은 올해 지역분과가 논의해야 할 프로젝트로 크게 두 가지 안을 수립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갈등해결 절차 제도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 독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사회·국가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전반에 작용하면서 이념 등 다른 갈등과 중첩 확산돼 복합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국민도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의 일차적인 통로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역갈등 해결 위해 지역분과위원 22명 위촉

사통위 지역분과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꾸렸다. 김영신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다.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현행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9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당을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 6·2지방선거가 지역주의 선거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제2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이 대회는 영호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장(場)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아DB

지지하는 표들은 모두 사표(死票)가 돼 국민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당 A, B, C 중 정당 B는 전체 지역구 평균 득표율이 40퍼센트로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2위에 그쳐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모두 낙선한다.

그러나 가·나·다 지역구에서 A정당이, 라·마·바 지역구에서 C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획득해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정당이 기득권을 행사해 고른 지지율을 얻은 다른 정당의 표심을 헛되이 한다는 얘기다.

지역주의 정치구조, 선거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역 패권정당 위주의 선거를 정책정당 위주의 선거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전문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검토 중인데 8월 초 열린 9차 회의에서 그간의 대안들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정리해 발표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독일, 일본식 선거제도에 대한 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했고 지역구 후보의 기호제 순번 폐지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 등을 새로 제안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담당하는 사통위 이지현 사무관은 "소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더 거쳐 오는 10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6·2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갈등 유발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갈등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지 못한 탓도 적지 않다. 지역갈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백24건으로 한 해 평균 33건이 발생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등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은 미진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지역갈등소위원회에선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 내 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 방안, 공무원 교육 중 3~6개월 과정의 갈등 전문 훈련 프로그램 신설, 갈등 해결을 전문적으로 돕는 갈등관리사 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근 공공지역갈등소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사회갈등 관리에 대한 기본법안'(가칭)을 행정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지난해 세쌍둥이를 얻어 네 자녀의 부모가 된 전명숙 씨 가족.
전 씨는 내년 5월 1일까지 육아휴직 중이다.

가족친화 일터 만들기… 일자리 나누기…

'가정·직장'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 일터 만들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일자리 공존은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난해 3월 세쌍둥이를 낳은 전명숙(35·롯데백화점 서비스 리더) 씨는 내년 5월 1일까지 육아휴직 중이다. 그는 임신한 동안 심한 입덧과 배에 복수가 차는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걱정 없이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줬고, 상사와 동료들도 전 씨가 업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덕분에 그는 출산휴가 3개월 후에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은 세쌍둥이이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2년만 신청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법인세 감면 및 도입비용 세제 지원

전 씨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절로 생겼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육아휴직제뿐 아니라 직원 심리상담, 정시퇴근 캠페인, 순환근무제, 리프레시 휴가제 등 직원과 그 가족을 배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제동에 연 어린이집은 백화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평일에는 밤 9시 30분까지 아이를 맡아주고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연다.

이 같은 노력으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08년 14개, 지난해 20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2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3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다. 또 자녀가 없을 때 52.6퍼센트이던 고용률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36.5퍼센트로 급격히 떨어져 출산과 육아가 여성 퇴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 보육, 가족간호 휴직제 등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권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이나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소극적인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도입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기업이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인식이다.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출산·육아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김세완 기획부문장은 "직원들이 육아 부담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회사로서는 더 큰 손실"이라며 "가정과 양립 가능한 직장을 만들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한국생산성본부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에 의하면 3백22개 상장법인 중 생산성이 높은 상위 20퍼센트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45.9점으로 하위 20퍼센트의 40.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점진적 퇴직제' 도입으로 청년층 일자리 확보 기대

회사원 한모(52) 씨에게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딸(26)이 있다. 한 씨는 자신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한데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딸 때문에 마음이 더욱 편치 않다.

한 씨 가족처럼 요즘 일자리 문제로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 자녀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으로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DB

55~79세의 57.1퍼센트가 일하고 싶어 한다. 7월 26일 서울 관악구 행운동 관악시니어클럽의 도시락 작업장에서 할머니들이 정성과 손맛이 담긴 도시락을 만들었다. 이 도시락은 인근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퍼센트인 7백12만명. 이들 중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3백11만명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실업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7.2퍼센트, 2009년 8.1퍼센트, 올 7월 8.5퍼센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청년실업의 장기 소득상실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장기 실업에 따른 세수 차질액도 1조5천3백20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연장은 자칫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점진적 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기와 은퇴기 사이에 점진적 퇴직기를 둬 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임금 감소와 연계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층 고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총액임금관리제를 도입한 세대 간 일자리 공존 모델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연금과 일자리의 세대지형'이라는 논문으로 세대 간 경제갈등을 분석한 고려대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는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라며 "경제성장보다는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일자리 극대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다문화가족·탈북자 모두 多 한국인"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는 국가경쟁력 높이는 토대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정책뿐 아니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다문화사회는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박병윤(40) 씨와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 구엔쭉리(28) 씨는 2008년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통합교육에 참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 결혼 후 1년간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싸웠던 부부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자부하지만 멋진 남편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 했다"고 말했다.

이제 박 씨는 예전처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퇴근 후에는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준다. 나아가 자신처럼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과 자조모임을 만들어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8만2천명.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흔한 가족형태가 되면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국제결혼 중개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일부 중개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혼 후 심각한 가정불화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미용, 요리 등을 배우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20일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상태, 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 발급 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한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도 문제다. 2009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연령 탈(脫)학교 자녀 수는 약 2천명으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수년 내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들이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다솜학교'(가칭)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학교와 직업학교의 역할을 겸해 고교 졸업 학력과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문화가정 脫학교 자녀 위한 대안학교 검토

국제다솜학교는 시범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하되, 한국폴리텍대학에 병설 운영하거나 언어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분절적이고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위는 다문화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의 다문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무 부처의 다문화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정이 밀집한 시군구에는 전담인력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논문 '다인종사회 관련 갈등과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중심으로'에서 "배타적인 사회보다 다문화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복지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식해 이들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

글·이혜련 기자

북한이탈주민 1만9천3백명

정착 위한 지역단위 통합체계 구축

남북 여성이 함께하는 두레방공동체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봉사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봉사활동은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 7월 16일 부산의 부산진역 광장에서는 30명의 남북 여성들이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끓이고 수박을 잘라 노숙인들에게 대접하느라 분주했다. 행사를 주최한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의 '두레방공동체'는 부산지역 여성 15명이 북한이탈여성 15명과 결연해 구성한 단체다.

현재 부산에는 7백명이 넘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살고 있지만 정보 부재와 문화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레방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남북 여성들이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웠던 삶의 지혜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2007년 만들어졌다.

부산YWCA 문미영 팀장은 "탈북여성들이 나눔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7월 말까지 약 1만9천3백명.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13.7퍼센트로 일반국민 평균 3.2퍼센트를 4배 이상 웃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도 그들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북지원단체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북한이탈주민 2백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7.6퍼센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남한사회에 적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통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직업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는 곳은 결국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통합체계 구축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향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시험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달자 시인·이원복 교수 대담

"우리에겐 소통·화합의 유전자가 있어요"

만화로 소통하는 이원복 교수와 정제된 시어(詩語)의 달인인 신달자 교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소통, 화합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 두 사람은 각자의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과 양상, 화합을 위한 방안을 한 폭의 시화처럼 그려냈다.

그림과 시가 한자리에 만나면 시화(詩畵)가 된다던가. 베스트셀러 시집 〈백치애인〉 〈물 위의 여자〉 등의 저자 신달자(66) 시인과 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로 이름 높은 이원복(64)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의 만남이 그러했다.

제4호 태풍 '뎬무'가 억수같이 비를 뿌리던 8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민간위원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고정관념 버리며 갈등 해결해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과 자신의 암 투병까지 온갖 시련을 헤쳐온 신달자 시인은 고통과의 화해, 인간의 본질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해오며 시인의 눈으로 우리 사회 이모저모를 바라봐왔다. 이 교수는 작품들이 대형서점 만화 코너가 아니라 인문교양·역사 코너에 꽂혀 있는 '만화가 아닌 만화가'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이 많은 두 사람은 사통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통위란 사회통합이 안 되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멍석 깔아주는 자리'"라는 것이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의 이구동성이었다. 이제부터는 두 사람을 위한 멍석을 깔아볼 터다.

신달자 갈등이란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원복 맞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갈등 없는 나라는 없어요. 갈등을 찍어 누르지 않는 개방적인 나라일수록, 건강한 사회일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 속에 증오와 적개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달자 갈등에도 질(質)이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나쁘다고 본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의 질은 아주 걱정스러워요.

이원복 가장 큰 원죄는 분단에 있어요. 6·25전쟁을 전후해 얼마나 많이 죽고 죽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갈등이든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이겨야 살고, 남이 이기면 죽는다는 극단적인 고정관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건 반대론자에 대해 눈에 쌍심지를 켜는 정서가 문제죠.

신달자 갈등 가운데 지역갈등의 골이 가장 깊다 싶어요. 어디서든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를 따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잖아요. 또 왜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도 문제예요. 대학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니 삶의 질이 떨어져 불안하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남을 믿겠어요. 사회통합이 어렵습니다.

이원복 재미있는 것은 못사는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는 겁니다.

신달자 옛날엔 부자가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땅값, 집값이 오르면서 누구나 부자가 됐어요. 같이 시래기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벤츠를 타니, 이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꿈도 희망도 사라지게 만들어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요즘은 30년, 40년 못 본 친구도 딱 세 마디만 물으면 다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 사냐" "어느 아파트냐" "차 뭐 타냐".

이원복 우리나라는 평등 개념이 세계에서 제일 강해요. 서양에서는 누가 캐딜락 타고 지나가면 "저 차 좋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짓해서 돈 벌었냐'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평등 갖고는 모자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균점(均霑)이란 말 아시죠? 똑같이 사과 3개를 줘도

신달자 시인과 이원복 교수가 각기 다른 감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소통, 화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은 인간의 질이 높아지고 꿈이 있는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 그것이 가능한 유전자가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_신달자

남의 사과를 보고 '저 사과는 왜 내 거보다 좋은가'를 따져요. 똑같은 컵에 물을 담아주어야 말이 없어요. 하향평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나마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신세대입니다. 그들은 분단이나 이념에 덜 민감해 이념갈등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반목과 증오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신달자 대신 신세대 사이에서는 다른 갈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삶의 질이 떨어져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질이 떨어져 손쓸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원복 문제는 뻥 뚫리지 않는 것이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계급제도가 완벽하게 무너진 곳도 없는데 이상하게 소통은 안 되고 있어요.

신달자 계급이 무너지면서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른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인간 대 인간, 1대1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소통되지 않고 긴장만 고조되는 상태를 해소할 물꼬를 트지 않으면 인권마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원복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교육에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잠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교육대국이라면서도 정작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잠을 잡니다.

신달자 제가 만약 교육담당 장관이 된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집도 하나씩 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만 바르게 키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교육도 겸비해야겠지만 초등학교 6년 동안 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이원복 요즘 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인기더군요. 그 드라마를 보면 반죽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초등학교가 바로 인간을 만드는 반죽 과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굽는 단계고요.

신달자 콩나물국이 맛있으려면 콩나물 자체가 싱싱해야 하듯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람이 올발라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정상화해서 교육을 통해 좋은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원복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 요인이 과정을 무시한 선행학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엄마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치냉장고가 출시돼 정규 냉장고 판매 대수를 넘는 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주부들, 엄마들의 힘이죠. 선행학습 역시 선지자적인 엄마들이 붐을 일으키고 흐름을 바꾼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들의 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몇 번 바뀌어도 절대 안 됩니다.

신달자 요즘은 여성들이 교육받고 직장 다니고 큰소리 치고, 남자는 약해졌다고들 하죠. 혹시 집 안에서 담배 피우세요?

이원복 집 안이라뇨. 전 옛날에 끊었어요.

신달자 여자들은 행복할까요? TV만 켜면 잘난 여자 나오지, 잡지만 펼쳐도 돈 번 여자 나오지, 참 살기 어려워요.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게 낱낱이 공개되니 비교되어 참 살기 힘듭니다. 시중에 나도는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여자가 동창회를 다녀와 핸드백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화를 버럭 내더래요. 남편이 "무슨 나쁜 말을 들었느냐" 했더니 여자 하는 말이 "남편 있는 여자가 나밖에 없단 말야" 그러더래요.(웃음)

이원복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따로 놀죠. 요즘 남자 노릇 참 어렵습니다. 1990년대에 '신세대'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해서 '신인간'이란 말이 나오더니 금방 또 '신인류'가 나왔어요. 내가 볼 때 인간의 모습만 비슷하지 요즘은 '신종족'이에요. 한마디로 '아바타'죠.

신달자 옛날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외계인'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바타'라고 하데요.(웃음) 아무튼 신종족이든 아바타든 가정의 화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되면 이웃하고도 되는 것이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하고도 되는 것이죠.

이원복 세대 간 '대화 코드'가 달라요. 우리 세대는 그림이 아니라 활자를 보고 자라 사고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데 요즘 세대는 그림을 보고 자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신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코드를 이해하랄 수 없고, 결국 우리 부모 세대들이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달자 예전에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모처럼 분위기 있게 대화 한번 해보자 하고 거실에 누운 남편을 꼬드겨 주방 식탁으로 불렀어요. 와인 잔을 부딪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남편 한 마디, 나 한 마디, 남편이 한 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딱 세 마디 끝에 남편이 버럭 소리 지르고 거실로 가 버렸는데, 둘 다 똑같이 생각했죠. '어떤 놈은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안 돼.' 우리 국민 모두 우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원복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들어요. 우린 안 돼,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국제행사에서 코리아란 이름을 달고 세계와 맞서면 모두 한국인으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삐걱거리고 갈라집니다.

신달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낯선 외국인과도 '하이' 하고 인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죠. 이원복 선생님 말씀처럼 모르는 이에 대한 경계심이 깊은 게 분단이나 6·25전쟁을 겪은 후유증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갈등 없는 나라는 없어요. 개방적이고 건강한 나라일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 속에 내재된 증오와 적개심이 문제입니다. _이원복

이원복 사실 양극단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침묵하는 중간층이 넓어요. 외국에선 이러한 중간층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회주의자, 회색분자로 몰아요.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중간층이 마음 놓고 입을 열 분위기가 마련돼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들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고 하지만 어느 정파나 정당, 사회단체들도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은 없다고 봐요. 다만 '자기 식'으로 할 뿐이죠. 이를 이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는 노력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잘살아보세' 구호 아래 경제발전 이뤄

신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을 보세요. 수능 100일 전부터 기도하는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수능시험이 한 일주일 남으면 봉은사에 남아나는 빗자루가 없대요. 아빠들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마당을 쓰는데, 자식 위한 마음에 남이 쓴 마당을 또 쓰는 거죠.

이원복 정말 열성적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단민국'입니다.

신달자 2002 한일월드컵 때도 외국인들이 다 놀랐잖습니까. 그래서 '코리아'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안답니다.

이원복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 나오면 그 아래 딱 뭉칩니다. 예전엔 '잘살아보세' 구호 아래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뤘잖아요.

신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화두가 아직 맞는 것 같아요.

이원복 '잘살아보세' 이후 국가적 슬로건이 사라졌어요. 이제 경제성장 이후를 이끌 국가적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공감할 비전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사랑받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잘살아보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슬로건이어야 합니다.

신달자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은 인간의 질이 높아지고 꿈이 있는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 그것이 가능한 유전자가 있어요. 누군가 이끌어만 준다면,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 소통과 화합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만화가와 시인의 만남. 얼핏 보면 이질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이날 대담은 우리 민족에겐 소통과 화합의 유전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두 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어느덧 뙤약볕의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참여·핵심 파악·조정능력 '3박자'

갈등 해소 해외 사례… 다양한 제도 마련해놔

선진국에서는 갈등이 조정과 중재 방식으로 원만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 조정인 제도와 시민참여 제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유럽과 미국 등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전문 갈등조정인 양성과 활용 사례, 주요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와 적용 사례, 미국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및 협력적 문제 해결 제도와 적용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 조정인을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내각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회가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후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계획이 확정되고 진행된 주요 국책사업으로는 스키폴공항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로테르담항구 개발사업, 남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대안적 분쟁 해결이 다양한 대안 도출,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으로 유용성을 인정받아오다 1991년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확정됐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소송보다 먼저 조정·협상,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미국에서 환경오염 피해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낙후되고 자생적인 해결능력이 없는 곳이 많다. 미국 환경청은 환경오염 치유 과정에서 지역의 자생적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우스캘리포니아의 소도시 스파르탄버그의 도시재건 프로젝트는 협력적 분쟁 해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인근의 비료공장과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오염으로 갈등이 발생한 스파르탄버그 주민들은 민간조직인 리제네시스(Regenesis)를 결성하고 환경청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암흑의 땅을 비전이 있는 상생의 도시로 재생시켰다. 미 연방정부는 리제네시스 사례에 기반한 협력적 문제 해결 모델을 환경분쟁 해결의 공식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AP

미국이나 유럽은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성범죄 관련 기록을 영구 보관하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해바라기 시위 모습.

유럽·미국, 갈등 해결 위한 전문 조정인 제도 갖춰

오스트리아 빈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갈등 해결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1998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표한 빈국제공항 확장 마스터플랜을 공항 인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빈공항주식회사는 2000년 프라더 박사라는 전문 조정인을 고용해 체계적인 조정 설계와 실행을 요청했다. 프라더 박사는 지역 주민조직, 빈공항주식회사, 빈국제공항이 속해 있는 두 개의 주정부인 빈 주정부와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정부, 두 주의 환경보호기관, 인근 지자체 등을

AP

선진국은 갈등의 원인 파악에서부터 해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등 상황을 조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햄브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하는 주민들.

모아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또한 1년간 조정포럼 구성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어내 2001년 3월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정 과정을 시작해도 좋다는 조정협약을 받아냈다.

실제 조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때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9개의 지역 주민조직, 빈공항주식회사, 오스트리아항공, 공항 관제회사, 빈 주정부와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정부, 두 주의 환경보호기관, 공항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주말농장연합회, 국립공원관리공단, 9개 정당지부, 6개 관련 협회, 15개 인근 지자체 등 50여 그룹에 달했다. 주요 조정과제는 활주로 증설 여부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에 대한 문제 해결로 설정했다.

전문 조정인 프라더 박사는 조정역량을 발휘해 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2005년 6월 빈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대한 합의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빈국제공항 확장 때 조정포럼 꾸려 갈등 해결

이와 함께 공항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방음창 설치, 신규 활주로에 대한 야간 이착륙 금지, 승객당 20유로센트의 환경기금 조성(75퍼센트는 지역 발전에, 25퍼센트는 소음 연구에 쓰기로 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조정포럼은 '대화포럼'이라는 조직으로 전환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갈등이 잘 해결되려면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빠지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는 공공정책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지자체, 기업 및 기관, 사업 시행사 및 중앙정부 등이 핵심 이해관계자다. 이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다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갈등의 핵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플래카드에 적힌 내용'이 곧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본질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정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조정 혹은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조정인 혹은 그런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 직원의 조정능력이 갈등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빈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 사례는 이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구성되면서 갈등 해결의 성과를 가져왔다.

갈등 해결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조정능력을 제대로 갖춘 조정인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를 정확히 설정해 치밀하고 끈기 있게 논의를 진행한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G

글 · 박태순(한국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사통위 '소통과 화합 마당' 운영…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발굴

일러스트 · 남용우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전문가와 현직 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업 명칭도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또는 강의전담교수, 연구전임교수 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또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뛰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주 대학과 종 대학의 시수를 합쳐서 주 대학에서 대우를 하고 사립대 강사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가장의 경우 박사과정 중이거나 박사과정 수료, 박사학위 취득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2년 경력의 시간강사 A씨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인 '소통과 화합 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 마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다.

지난 1월 사통위 홈페이지(www.harmonykorea.go.kr)에 문을 연 이 코너는 일정한 양식을 갖춰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우편이나 전화로도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이 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효성 심사와 정책화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안은 네 등급으로 구분해 포상한다.

시간강사 문제 · 지역감정 해소 제안 등 의견 1백여 건 올라와

사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코너에 올라온 의견은 1백여 건 정도. 먼저 '지역감정 유발 및 차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의견 등 지역감정 해소에 관한 제안이 9건 접수됐다. 사통위는 이 제안들의 정책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 정책으로 연결하기 힘든 제안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사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사통위는 지난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강사를 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포함해 총 1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사통위는 그동안 시간강사대책특별위원회를 5차례 진행했으며, 국민제안 당사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켜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책화할 만한 양질의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직 아쉬운 실정이다. 사통위 대외협력팀 박경석 협력관은 "소통과 화합 마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제안을 정부 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만큼 좀 더 따뜻한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제안센터에는 소통과 화합 마당 외에도 '자유게시판' '위원회에 바란다' 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사견이나 느낌은 자유게시판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조언 등은 '위원회에 바란다'에서 기다리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민제안센터 harmonykorea.go.kr

전화접수 | 02-2180-2772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5층

"12개월 미만 아기에겐 꿀 먹이지 마세요"

아기의 첫 식사 이유식.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는 만큼 재료 준비부터 먹이는 방법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 모르는 것투성이인 초보 엄마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 아기 평생 식습관을 좌우할 이유식에 관한 알짜 정보를 제시했다.

동아DB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하다 보면 이유식까지 깐깐하게 챙기기 힘든 초보 엄마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른들에게 좋은 음식을 무턱대고 아기에게 먹였다간 큰일을 당하기 쉽다. 지난 1월 첫아이를 낳은 주부 김은정(31) 씨도 최근 가슴을 크게 쓸어내린 일이 있었다.

며칠 전 방송한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에서 꿀에 비피더스균이 많아 변비와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아기가 변비로 고생하는 것이 떠올라 곧바로 집에 있던 꿀을 미지근한 물에 타 보리차 대신 아기에게 먹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잘 놀던 아기가 갑자기 호흡이 작아지고 몸이 축 처지는 이상증상을 보여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인은 바로 꿀이었다. 꿀 속에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의 포자가 들어 있다. 포자가 발아해 성장하면 독소를 생성한다. 이 독소는 면역체계가 형성된 12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먹일 경우엔 괜찮지만 그보다 어릴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콘시럽 역시 조심해야 한다.

생후 6개월부턴 이유식 병행해야

이처럼 초보 엄마들은 어른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무심코 아기에게 먹였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 및 위생 관리가 한층 요구되는 여름철을 맞아 이유기 아기의 성장 발달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 공급 및 식품위생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생후 6개월 무렵의 영아에게 이유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일반 식사 형태의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시작한 경우 성장장애 및 섭취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생후 4, 5개월이 되면 태내에서 저장해두었던 철분, 구리 등의 무기질 영양소가 다 소모돼 결핍상태가 될 뿐 아니라 생후 5개월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2.5배로 성장하는데 모유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생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모유나 분유만 먹이다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등 영양소가 부족해져 근골격의 약화나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아기의 성장 정도를 고려해 유즙 이외의 고형식품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줘야 한다. 반대로 아기가 잘 먹는다고 생후 4개월 이전에 무리하게 이유식을 하다 보면 알레르기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먹는 양이 잘 늘어나지 않아 오히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생후 6개월까지 모유를 먹이고, 생후 6개월부터 만 2세 무렵까지는 모유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유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다. 영·유아기 식습관은 평생 지속되므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아이의 편식 습관을 막아야 한다. 또 싱겁고 담백하게 조리해야 한다. 영·유아기부터 성인과 비슷한 짠맛에 익숙해지면 평생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기 쉽다.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므로 알레르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유 초기에는 담백하고 알레르기가 적은 쌀미음부터 시작해 한 가지 음식을 2, 3일 간격으로 주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살펴보며 한 번에 한 가지씩 첨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란, 땅콩, 밀, 대두, 고등어, 복숭아, 토마토 등은 아기의 생체 특성에 따라 적은 양부터 시작해 양을 늘려야 한다. 곡류,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은 물론 철분, 아연, 칼슘이 풍부한 생선이나 고기 등 동물성 식품을 충분히 먹이되 양질의 영양소 및 면역성분이 함유돼 있는 모유 수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유식 만들 때는 싱겁고 담백하게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재료의 선택과 위생 문제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부족한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유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리도구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하며 농약이나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식재료를 선택해 완전 조리해서 먹여야 한다.

식재료 구입 시 원산지, 유통기한, 유통경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다. 해동한 재료는 당일 모두 사용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조리된 이유식

생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모유나 분유만 먹이면 영양소가 부족해져 근골격의 약화나 빈혈을 초래한다. 6개월 이후에는 아기의 성장을 고려해 유즙 이외의 고형식품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줘야 한다.

은 한 번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한다. 아기 침이 묻은 남은 음식은 금세 상하므로 버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영·유아를 위한 영양 관리를 돕는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홈페이지의 '영양교육(식생활)' 카테고리 중 '건강한 식생활'을 클릭하면 영·유아뿐 아니라 아기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에 소홀할 수 있는 임신·수유부 그리고 성인과 노인 등에 대한 식생활 지침도 마련돼 온 가족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 나안희 사무관은 "육아에 미숙한 초보 엄마들에게 특히 도움을 주고자 이번 자료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및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들을 위한 유용한 식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우매화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과 nutrition.kfda.go.kr

동아DB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고 그 이후부터 만 2세 무렵까지는 모유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라고 권장한다.

"주말에도 금연상담 받으세요"

8월 29일까지 시범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운영

많은 애연가들이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면 빛나던 도전정신도 슬슬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하지만 몇 차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콜센터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금연 상담전화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주말에도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기한은 8월 29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동안 주말에는 상담 신청 '접수'만 가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주말마다 평균 18.8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됐고,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이 있었던 지난 5월에는 평균 25.8건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금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연 지원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주말 금연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10주에 걸쳐 전문 상담사에게 체계적인 금연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상담전화의 전문 상담사들이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금연 보조키트 등으로 습관성 흡연 억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선교 사무관은 "금연 전화상담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며 금연을 혼자 시도할 때보다 금연 상담전화를 통한 금연의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공개적으로 금연 서비스를 찾아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청소년 및 여성 흡연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 기간에 금연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흡연자(선착순 5백명)에게는 파우치 형태의 금연 보조키트도 제공된다.

금연 보조키트는 식후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는 '금연치약'을 비롯해 담배나 라이터 대신 만질 수 있도록 하여 습관성 흡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모크프리 토이', 하루하루 금연 성공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체크하는 '1백 일 카운트다운 달력', 금연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이 수록된 매뉴얼 북 'Quit Book' 등으로 구성돼 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금연상담 ☎ 1544-9030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2-2023-7840

주말 금연상담을 신청한 흡연자 5백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 금연 보조키트.

쿨쿨~ 잠자는 홈페이지 줄줄~ 개인정보 샙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해 트위터에 수시로 접속하는 송재희(27)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는 거의 발을 끊었다. 여행에 관심이 많은 그는 3년 전 여행을 테마로 미니홈피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사진과 글을 부지런히 올렸다. 그 후 뜸해지다 1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포스팅을 할까 말까 할 만큼 소홀해졌다.

이곳 말고도 송 씨는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카페와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들었으나 업데이트를 거의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그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 중인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을 접하고 이들 블로그와 카페를 폐쇄했다.

일러스트 · 문지혜

강원도의 한 대학은 여름방학 중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에 참여해 학교 내 서버 안정화에 좋은 효과를 올렸다. 학교 서버에서 5백60여 개의 휴면 홈페이지를 찾아 정리한 것. 학생들의 교과 실습 후 방치된 홈페이지, 학년이 바뀌어도 남아 있는 학과 홈페이지 등을 없애자 서버 용량이 크게 늘고, 접속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캠페인 참여 기관에 상담·기술 지원

이는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에 참여한 사례들이다. 휴면 홈페이지란 장기간(6개월~1년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웹호스팅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46만여 개 중 약 14.5퍼센트인 6만8천여 개가 한 해 동안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은 휴면 홈페이지다. 또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중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가 포털별로 20~40퍼센트에 달한다.

이 같은 휴면 홈페이지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및 해커의 원격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 즉 휴면 카페나 블로그에 수집돼 있는 개인정보들을 모아서 빼가는 프로파일링(Profiling·조각난 정보를 모아 개인정보를 구축하는 것)에 취약하며, 국내외 해커들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피싱(Phishing·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용하는 사기수법) 경로로 악용되기 쉽다.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휴면 블로그나 카페를 폐쇄하면 된다. 호스팅 업체는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공동으로 장기 요금미납 계정 실태를 조사해 정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이나 컴퓨터학원, 기업체 등에서도 휴면 홈페이지를 찾아 정리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이상국 사무관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곳에는 기술 상담, 웹 보안 점검, 오프라인 교육 등의 혜택을 주고, 캠페인이 끝나는 8월 이후에도 상담과 기술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 kisa.or.kr/popup/2010/001/html/rest01.html

"'독도는 한국 땅' 전 세계에 외쳤다"

5백일 동안 독도사랑 전한 '독도레이서', 8월 14일 대장정 마무리

지난해 2월 서울대 동아리 '독도레이서'는 '우리 땅 독도'를 달리며 홍보하는 '독도 레이싱'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 첫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독도로 출발하는 배가 떠나는 포항까지 달리는 릴레이 마라톤.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세계를 무대로 5백일 동안 계속됐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5백일 동안의 독도사랑'을 들었다.

조영철 기자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독도레이서 활동 사진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복궁역과 서울대역에서 전시됐다. 사진은 한자리에 모인 독도레이서 팀원들. 왼쪽부터 김영주, 배성환, 한상엽, 최가영, 정진원 씨.

독도레이서들의 지난 5백 일간 도전은 한 편의 드라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7개국에 이르는 대장정. 이들의 도전 내용도 엄청나다. 국내 활동 기간엔 서울에서 독도까지 달린다는 의미로 경북 포항까지 릴레이 마라톤을 이어간 뒤 포항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도착하는 도전에 성공했다.

독도 홍보 세계일주는 독도레이서 도전의 하이라이트. 총 11개월 동안 세계 30여 주요 도시를 돌며 미니마라톤을 주최하고 사물놀이, 태권도 등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길거리 공연을 계속했다. 그동안 이들이 사용한 비용만 2억원. 학생들은 비용 마련을 위해 농협 등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절반을 충당했고,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현지에서 웨이터 일이나 지붕 청소, 인쇄소 제본작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결했다.

"3천명의 발도장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독도레이서 멤버 중 유일한 사회인인 배성환(28) 씨는 이번 도전을 위해 체육교사직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저금통장을 모두 해약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재산을 얻었다"며 "특히 미국 뉴욕마라톤에 독도레이서 모든 멤버가 독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두르고 참여해 완주한 뒤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일, 체코 프라하마라톤에 참가해 독도를 홍보한 일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도레이서 멤버 정진원(25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4년)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전통문화 공연을 가졌을 때 실수가 많았다"며 "심지어 교민 한 분에게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쓴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이 충고가 약이 돼 이후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페루의 쿠스코시립극장에서 벌인 공연

독도레이서

독도레이서 팀원들은 세계 30여 주요 도시를 돌며 '독도는 한국 땅' 임을 알렸다.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모습.

은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곳에선 한국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짧은 스페인어를 동원해 시의 협조를 얻어내는 등 공연을 이끌었거든요. 그 결과 5백명이 넘는 관객이 우리 공연을 찾았습니다.

독도레이서들은 〈미주한국일보〉 1면을 장식하는 등 북미를 비롯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지를 발로 누비며 독도를 홍보했다.

독도레이서 팀장인 한상엽(27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4년) 씨는 "우리 행사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 사람들 3천명의 발도장을 받은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도장 받기 프로젝트'는 독도레이서의 메인 아이템으로 독도 홍보가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깊이 있는 발자취를 남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한 사람들이 발도장 찍는 것에 직접 참가하면서 독도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독도레이서는 그들의 발도장을 독도로 가지고 감으로써 발도장을 남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독도를 밟아본다는 의미도 덧붙였다. 배 씨는 "발도장을 보면 지난 5백 일간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감격해했다.

최가영(24 · 서울대 경제학부 3년) 씨는 "스물두 살에 시작한 도전이 스물넷에 완성됐다. 평생 잊지 못할 멋진 도전이었다. 내가 본 세상은 너무나 넓고 컸으며, 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독도레이서 매니저를 맡은 김영주(24 · 연세대 기계공학과 3년) 씨는 "아프리카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멤버, 일본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돼 응급실에 실려간 멤버 등 돌이켜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정말 힘들 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회의도 들었다"며 "그러나 전시회를 통해 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니 뿌듯한 마음과 애국심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독도레이서 멤버는 팀장인 한 씨를 비롯해 취재 때 직접 만난 5명 외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한나(서울대 서양화과 4년), 윤지영(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2년) 씨 등 7명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들을 있게 해준, 독도레이서 멤버들이 가슴에 묻은 소중한 이가 있다. 지난해 2월 서울~독도 이어달리기 마라톤에 참가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도건(당시 19세 · 서울대 조선항공공학과 1년) 군이다.

故 김도건 군 가슴에 묻고 '불가능한 미션' 성공

팀의 막내였던 도건 군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뜨자 멤버들의 신경은 예민해졌고 '우리의 도전이 도건이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가뜩이나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에 시작과 함께 발생한 동료의 죽음은 어린 학생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이들을 붙잡아준 이는 도건 군의 부모님이었다. 도건 군의 부모는 "너희가 여기서 도전을 멈추면 도건이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격려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들은 무수한 역경을 헤쳐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이 세계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도건 군의 부모는 "너희들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너희들을 살렸다"는 말로 이들의 도전 성공을 축하했다.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아들의 뜻을 이룬 친구들의 모습에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딛고 이뤄낸 독도레이서의 드라마 같은 도전이 '독도사랑'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더욱 뜨거운 울림으로 다가온다. 지난해 2월 서울~독도 간 마라톤으로 시작한 독도레이스의 도전은 전 세계를 돌아 올해 8월 14일 그동안 받은 발도장을 들고 독도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됐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축구 하나로 새로운 인생 골~인"

'홈리스 월드컵' 준비하는 노숙인들, 희망의 골 위해 구슬땀

다시 살기 위해 공을 차는 이들이 있다. 9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0 홈리스 월드컵에 참가할 노숙인 축구팀이다. 아직 유니폼과 축구화는 갖추지 못했지만 희망의 골을 넣기 위해 부지런히 땀 흘리며 뛰는 그들을 만났다.

이대진(59) 씨는 얼마 전까지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았지만 커피 자판기 수리 등을 하며 단출한 삶이나마 자기 힘으로 꾸려가던 그가 거리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당뇨병과 위암 수술로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였다. 몸이 약해져 노동력을 상실하자 경제적 기반은 금세 무너졌고 거리로 나서게 됐다.

그러던 이 씨가 지난 7월 초 드디어 노숙인 생활을 청산했다. 새 직업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숙인들이 판매하는 잡지 〈빅이슈 코리아〉의 판매원이 되어 매일 오전 8시에 서울 건대입구 지하철역 4번 출구로 출근한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다시 4시부터 세 시간 반 동안 판매대를 지키며 하루 평균 20권의 잡지를 팔고 있다.

현재 이 씨를 비롯해 〈빅이슈 코리아〉에서 일하는 판매원은 모두 15명. 이들은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쪽방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홈리스 월드컵' 용기와 희망 나누는 축제의 장

요즘 이 씨는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들떠 있다. 홈리스 월드컵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세계 여러 나라 노숙인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축제의 장(場)으로 2003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홈리스 월드컵에는 48

7월 21일 노숙인 출신 〈빅이슈 코리아〉 판매원 15명이 서울 영등포공원 내 풋살 경기장에 모여 축구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9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홈리스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국 5백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홈리스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중 77퍼센트가 대회 이후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참가자들뿐 아니라 개최 도시에서 홈리스 월드컵을 관람한 시민들의 노숙자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을 취재했던 〈빅이슈 코리아〉의 심샛별 문화사업국장은 "홈리스 월드컵은 대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이 노숙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노숙인들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이며 약간의 자극과 동기부여를 통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홈리스 월드컵은 길이 22미터, 폭 16미터의 미니 경기장에서 전·후반 각 7분씩 14분 동안 승부를 가리는 '풋살' 경기다. 한 경기당 골키퍼 포함 4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15명의 〈빅이슈〉 판매원 우승 목표 매주 토요일 훈련

지난 7월 21일 15명의 〈빅이슈 코리아〉 판매원들은 서울 영등포공원 내 풋살 경기장에 모여 첫 축구 연습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승을 목표로 매주 토요일을 훈련하는 날로 정했다.

〈빅이슈 코리아〉 판매원들은 홈리스 월드컵 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걱정거리가 있다. 선수 8명과 직원 2명 등 총 10명의 항공료와 훈련비용 등 3천만원을 부담할 후원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일단 부지런히 연습하다 보면 좋은 후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홈리스 월드컵은 축구공 하나와 용기, 열정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는 축제입니다. 이 대회에 한국의 노숙인 대표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해 좌절과 실패로 눈물을 흘려본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빅이슈 코리아〉 사업단 ☎ 02-766-1115 bigissue.kr

? 〈빅이슈 코리아〉는

7월 5일 창간호를 낸 〈빅이슈 코리아〉는 노숙인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자립을 지원하는 잡지다. 지난 14년 동안 홈리스 자립을 지원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거리의 천사들'이 시작한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노숙인에게만 판매권을 주고 판매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판매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는 이 잡지는 원래 영국에서 1991년 시작됐다. 현재 세계 35개국에 걸쳐 1백6개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기사는 대개 유명인들이 대가 없이 기고하는 '재능 기부' 형태로 채워진다.

노숙인, 세계 5대 사막 횡단에도 도전

"극한의 레이스로 희망의 빛 찾는다"

〈빅이슈 코리아〉의 노숙인 출신 판매원들은 앞으로 세계 5대 사막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에도 도전한다. 이 마라톤은 어드벤처레이스 회사인 '레이싱 더 플래닛(Racing The Planet)'이 개최하는 대회로, 이집트 사하라와 모로코 사하라, 몽골 고비, 칠레 아타카마, 남극 등 5곳을 무대로 이뤄진다. 거센 모래바람과 살인적인 더위, 혹한에 맞서는 극한의 레이스로 참가자들은 사막 한 곳당 7일 동안 2백50킬로미터가량을 완주해야 한다.
〈빅이슈 코리아〉 사업단 관계자는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의 끝을 맛본 노숙인들이 극한의 레이스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다"며 "죽기 살기로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리스 사막 레이스 스포츠단의 감독을 맡은 사람은 세계 5대 사막 레이스를 완주한 그랜드슬래머이자 〈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를 펴낸 영화 프로듀서 김효정 씨다. 그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행복을 나눠야 한다는 고민을 하던 중 〈빅이슈 코리아〉의 제안을 받고는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사막 횡단 희망 마라톤은 홈리스 월드컵보다 더 긴 준비기간과 더 많은 훈련비용이 필요한 경기로, 사업단은 현재 홈리스 사막 레이스를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찾고 있다. 후원사가 확보되는 대로 올해부터 훈련을 시작해 체력을 단련하고 내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례대로 열리는 5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빅이슈 코리아〉를 파는 노숙인 출신 판매원.

동아DB

“한국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죠”

40년간 한국 사진 찍어온 일본인 후지모토 다쿠미

찰칵, 짧은 셔터음 속에 모든 것이 담긴다. 눈부신 햇살과 따스한 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
1백 번 넘게 한국을 오가면서 사진작가 후지모토 다쿠미 씨는 수만 번 셔터를 눌렀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의 촬영은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된다.

올해 처음 한국에서 개인전을 연 후지모토 다쿠미 씨는 1972년 경북 고령 촌락, 1976년 부산 자갈치시장, 1969년 경북 고령 포플러길(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 등 40년간 한국 풍경과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왔다.

1969년 여름, 열아홉 살 일본 청년은 부산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건 이미 예견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후지모토 다쿠미(藤本巧·61). 건축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는 조선 민예 연구가 아사카와 다쿠미를 존경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다쿠미 씨는 '조선 공예품과 백자의 멋'을 알린 아사카와 다쿠미에게 빠져들었다. 그것은 이후 40년간 1백 차례 넘게 한국을 찾는 힘이 됐다.

"당시 한국에는 카메라 장비가 귀했습니다. 한국의 공예품에 관심을 갖던 차에 '그럼 내가 직접 한국의 풍경과 공예품을 사진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하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사진기를 메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엮어서 만든 사진집만 8권. 1974년 펴낸 첫 사진집 〈한국인〉을 시작으로 2009년 〈이조공예〉까지 흑백사진의 선명함 속에 수수하고 풋풋한 한국의 공예품과 풍경,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북 남원에서 촬영한 소 여물통이었어요. 둥글넓적하게 생긴 여물통의 곡선미가 참 아름답더군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과 실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앞으로도 렌즈 속에 한국의 모습 꾸준히 담을 터

오랫동안 한국 사진을 찍어왔지만 아쉽게도 한국어엔 약하다. 그래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의 입에선 '원두막'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평온하게 펼쳐진 논밭 사이로 우뚝 솟은 원두막이야말로 농촌 풍경의 백미가 아닐까 싶어요."

다쿠미 씨는 흑과 백이란 심플한 컬러가 주는 이미지의 힘이 강하다고 믿는다. 지금도 흑백사진만 고집한다. 그래서 개발의 여파가 덜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시골 풍경은 몇 번을 다시 봐도 그에게 설레는 마음을 안겨준다.

"1972년에 찍은 경북 고령 시골마을 사진은 가장 아끼는 사진이에요. 초가집 곁으로 울퉁불퉁하게 쌓인 돌담과 그 아래 햇살에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흑백으로 대조돼 시골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욱 극대화시키죠."

원래 디자이너가 직업인 그는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다. 한국의 자연과 사물, 사람이 그의 사진 선생이었던 셈이다. 해인사에서 관조 스님이 눈물 흘리며 머리 깎고 출가하는 모습에서부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다시 태어난 청계천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진 속에서 한국의 어제와 오늘이 숨을

조영철 기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북 남원에서 촬영한 소 여물통이었어요. 둥글넓적하게 생긴 여물통의 곡선미가 참 아름답더군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과 실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쉬고 있다.

다쿠미 씨는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바라봐온 렌즈 속 한국의 모습을 전시했다.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한국의 바람과 사람〉이란 이름의 사진전이다.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을 찾아와 촬영하고 싶다고 했다. 그 다짐은 처음 한국을 돌아다닐 때 느낀 감정의 '전율'로부터 비롯됐다.

"무아지경 속에서 셔터를 누르는 내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아름답게 일체화된 하늘, 나무, 초가집, 흙벽, 돌무더기. 나는 '한국의 살아 있는 아름다움'에 짓눌려버렸습니다."(1969년 포플러길·경북 고령) G

글 · 김민지 기자

일하는 틈틈이 퀴즈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한 임성모 씨는 "앞으로 남은 KBS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의 끈 놓지 않으면 꿈 이룹니다"

'퀴즈 영웅' 등극한 중졸 화물차 운전기사 임성모

중졸 학력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퀴즈 영웅' 자리에 올라 화제다. 지난 7월 4일 KBS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한 임성모(57) 씨가 그 주인공.

임 씨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해했지만 그의 화물차 안을 들여다보니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가 절로 떠올랐다. 운전석 쪽 창문에는 암기용 메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계기판 위에 놓인 그만의 정리 노트에선 오랜 노력의 흔적이 배어났다.

그는 7년 전 '퀴즈 대한민국'에서 중졸 학력의 50대 열쇠 수리공이 퀴즈 영웅이 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5년간 퀴즈 풀기에 몰두했다. 1년 반은 기본상식을 암기하는 기간이었다. 그의 방에는 당시 외운 세계 각국의 수도·면적·인구 등을 정리한 표, 주요 국가의 왕 계보를 나열한 표, 표준 주기율표 등이 붙어 있다.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퀴즈 맞춤용 공부를 했다.

"모든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던 문제를 정리하고 신문을 스크랩했어요. 표준국어대사전, 백과사전을 꾸준히 암기해 현재 30퍼센트 정도 외웠는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한 노트가 15권이나 돼요."

임 씨는 17년째 화물차 운전을 하며 종이 상자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주일 중 엿새를 일하는 그는 화물차 안이 배움의 공간이다.

"주로 공부하는 곳은 화물차 안인데 납품을 기다리는 시간은 물론 신호대기 1, 2분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합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낸 적도 있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표 뽑는 것을 잊은 적도 있지요."

비법은 '이미지 연상·반복'… 암기내용 수시로 보는 게 최고

그는 퀴즈 프로그램에 세 번 출전하는 내내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혔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은 평생에 걸쳐 한으로 남았다. 특히 두 딸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그는 이번 퀴즈 영웅 등극으로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에어컨 바람도 나오지 않는 화물차를 이번 기회에 새것으로 바꿔주고 싶다고 했다.

임 씨의 다음 목표는 KBS 퀴즈 프로그램 '1 대 100'과 '우리말 겨루기'에서도 최종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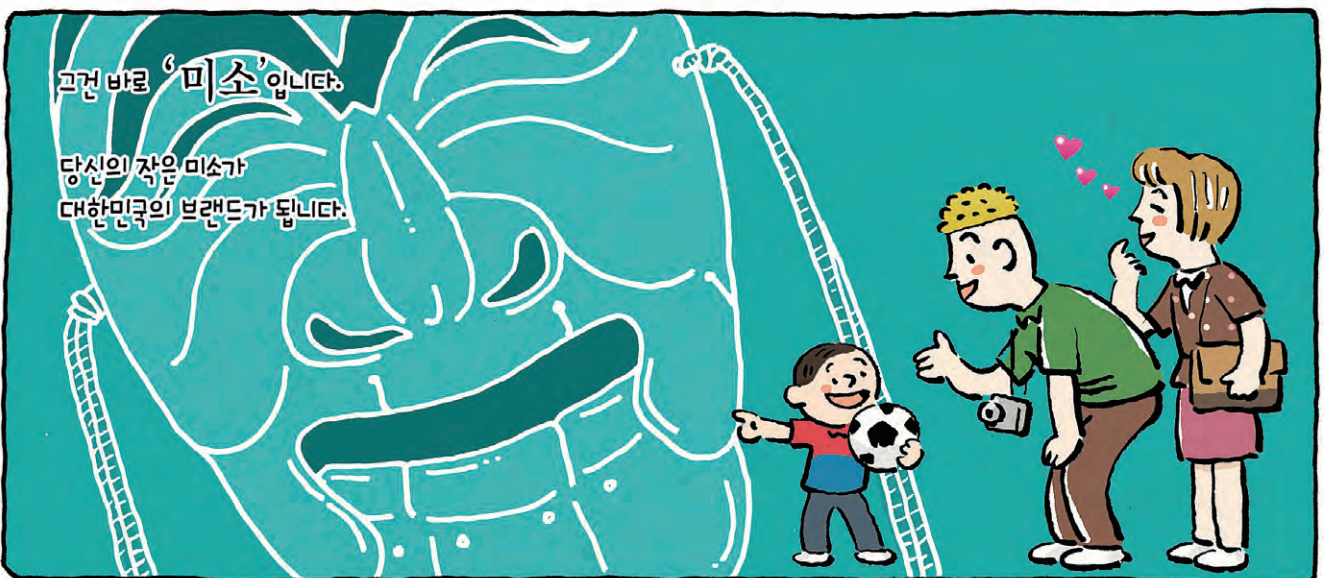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쉼 없이 간다면 느리더라도 누구든지 꿈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G

글 · 박혜림(주간동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미소의 가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미소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가 추천하는 〈한국의 상례〉
"'죽음' 생각하면 삶이 더 여유로워져요"

서울 성북동 길상사 건너편에 '효재(效齋)'란 이름을 내건 한옥이 있다. 담쟁이 넝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사랑채로 연결된다. 그 안에서 여름 햇살을 머금은 마당을 바라보면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절로 떠오른다. 올망졸망 핀 봉숭아꽃, 파릇파릇한 채소, 살랑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서울 하늘 아래 숨 쉬는 작은 생명들이 살갑게 반긴다. 그래서일까. 한복 디자이너로 20여 년간 바쁜 삶을 살면서도 친환경 살림을 꾸려온 이효재(52) 씨 역시 손길이 따스하다.

이 씨는 처음 본 사람을 오래 만난 벗처럼 대한다. 자연스레 말을 건네고 차를 내온다. 마당에 있는 넝쿨 잎을 차받침으로 대신해 자연의 싱그러움을 전한다.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면 이 씨의 무던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에 반한다. 그는 오늘 하루를 '다시 만날 수 없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는 '죽음'을 인지하며 살기에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이다.

신문도 읽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 그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펼쳐든다. 그중에서도 그가 관심 갖는 것은 우리 옛것을 알리는 책들이다. 최근 선조들의 과거를 살피면서 그의 인생 화두인 '죽음'과 관련한 〈한국의 상례(喪禮)〉(2010년)를 즐겨 읽고 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태어나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처럼 떳떳하고 평화로운 죽음이 없지요. 잘 익은 열매가 봄에 싹을 틔우듯, 행복하게 산 사람은 죽은 후에도 평안한 영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고전문학을 전공한 양승이 씨가 지은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상례에 주목한다. 선조들의 상례 역사와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삶과 죽음을 총체적이고도 다양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예법을 살피다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오롯이 관조할 수 있다.

〈한국의 상례〉 양승이 지음 / 한길사 펴냄 · 3만원

"고대인들은 저승에서도 이승의 삶이 이어진다고 여겨 순장하는 풍습을 가졌고, 신라시대에는 숭불숭유 정책 덕분에 유교식 매장과 불교식 다비 방식이 함께 사용됐죠. 유교사상을 정치철학으로 했던 조선시대엔 3년상이 본격화됐어요. 인간 존재 밑바탕에 있는 죽음을 알면 그 위에 세워진 정치, 도덕, 사회,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씨는 혼수 한복을 주로 짓지만 상복도 짓는다. 하지만 상복을 만들 땐 철칙이 있다. 들어간 비용만큼만 받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망자(亡者)를 위한 예의라 여겨서다. 죽음을 존중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매 순간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잡한 인생사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자연과 어울려 사는 삶이야말로 죽음을 무탈하게 맞이하는 '잘 살고 잘 죽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열정을 담아라

글과 그림 · 최영순

노래하는 사람이 스스로 즐거워하기 전에는
그 노래로써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다.
– 칼릴 지브란

Culture

가야금 선율에 어우러지는 춤과 그림

가야금 연주자 장원희 씨 연주회 〈육감2〉

가야금을 타는 연주자는 왠지 고운 한복을 입어야만 할 것 같다. 몸짓도 가지런하고 연주곡도 우리 전통음악이어야만 할 것 같다. 가야금 연주자 장원희(32) 씨의 연주회 〈육감(六感) 2〉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부순 이색적인 공연이다.

2007년부터 가야금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장 씨는 이미 지난해 실험적인 공연 〈육감〉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인간의 6가지 감각(Six Sense)을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담긴 〈육감〉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춤과 가야금 연주의 절묘한 앙상블을 이뤄내 큰 호응을 얻었다. 〈육감〉의 2탄 격인 이번 공연은 가야금과 춤 외에 그림, 영상, 바이올린, 트럼펫, 트럼본, 전통 타악기 등을 곁들여 보고 들을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미국 줄리아드음대 출신의 실력 있는 외국인 연주자들도 함께한다. 장 씨는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과 가야금과 바이올린을 위한 왈츠 '하늘산책'을 협주해 동서양 현악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준다. 트롬본 연주자 제이슨 크리미, 트럼펫 연주자 제프리 홀브룩과는 강렬한 리듬의 차차와 살사 음악을 함께 연주한다.

무엇보다 장 씨가 연주 도중 선보이는 살사 춤이 압권. 살사 실력이 수준급인 장 씨에게는 '춤추는 가야금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재미있고 친근한 가야금 연주회를 지향해온 장 씨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연주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가야금이 어떤 음악, 어떤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세계적인 악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8월 29일 오후 5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장애인 무료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발레 〈2010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 공연〉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강수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김세연 등 세계무대에서 최정상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발레리나들의 갈라 공연.
일시 8월 25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5만원,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707-755-2210 www.sac.or.kr

●● 뮤지컬 〈생명의 항해〉

이준기 등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들과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피난민 가족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자유와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운다.
일시 8월 21~29일 평일 오후 4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6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8월 21일은 오후 7시30분, 29일은 오후 2시에만 공연 있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B석 3만3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1555 www.ntok.go.kr

●
●●

올여름 전기절약 온국민 다함께 팍팍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1. 실내 **건강온도 26℃ 이상** 지키기
   (권장온도: 공공28℃/ 일반 26℃ /판매시설 • 공항25℃ 이상)
2. **낮 2시 ~ 3시**에는 **에어컨 사용 자제**하기
   특히! 낮 3시 전후엔 **에어컨 10분 끄기**
3. 점심 시간 및 외출 시에는 **조명등 끄기**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렴 등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강온도 26℃를 지켜주세요.”

권오중 의학박사 (KBS 비타민 외 다수 출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4대강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